

“기초노령연금 국고지원을 조정해 달라”

전남시장군수협 건의... 정종득 목포시장 “전액 지원”

전남지역 시장·군수들이 기초노령 연금 국고지원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5일 장성군청에서 제19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갖고, 국비지원 비율이 시군별로 70~90% 차등지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득 목포시장 등 일부 단체장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지방비 매칭 방식이 아닌 전액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전남 시·군별 국고 부담률을 보면 목포·여수·순천·광양의 경우 70%, 무안 80%, 나주시 등 기타 17개 군은 90%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정종득 시장은 목포시의 경우 2011년에는 2만439명, 2012년에는 2만1363명, 2013년에는 2만1801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인인구 증가가 비단 목포시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문제는 지방자치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 자체예산으로 지금까지 총 187억 원을 들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3매씩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로당 주치의제’를 통

해 병의원 235개소와 경로당 171개소가 결연을 맺어 매달 1차례 이상 경로당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식우려 독거노인 565명에게 목포노인복지관 등 6개소에서 식사를 공급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 돌봄 미 사업으로 목포시노인복지관 등 6개 기관에서 1500여명의 어르신을 보살피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대 로봇대표팀, 국제콩테스트 은메달

목포대는 5일 “제이로봇공학과 iSL과 로봇대표팀(지도교수 유영재)이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일산컨텍스에서 열린 2013 국제로봇콩테스트에 참가해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영재 교수가 이끄는 iSL과 MNU-CRE 로봇팀은 이기남(박사과정), 곽현진(석사과정), 이용준(박사과정), 김진관(석사과정), 조규진(석사과정) 등 대학원생과 학부생으로 구성됐다. <사진> 이번 국제로봇콩테스트에는 모두 3000개 팀, 7000여명이 참

가했으며, 스프린트, 마라톤, 농구, 축구, 장애물다리기 등 총 8가지 종목에서 자웅을 겨뤘다.

목포대 제이로봇공학과에서는 이번 대회에 휴머노이드 로봇 키즈 사이즈 부문 축구, 페넬티키, 마라톤, 스프린트에 출전했다.

제이로봇공학과 팀은 스프린트 1, 2차전에서 준결승에 진출하고 로봇축구 페넬티키 단독 1위, 120m 마라톤 완주 등의 성과를 내 1등과 종합점수 1점 차이로 종합 2위에 올랐다.

/*목포=김준식기자 kjs0533@

해남, 상하수도 국비 161억 확보

해남군이 5일 “2014년 상·하수도 분야 국비보조금 161억5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7개 지구 상수도(70억4600만원),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등 10개 지구 하수도(91억8000만원)에 각각 투입된다.

군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지속 방문해 해남지역 상하수도 보급률을

설명한 결과 총사업비 202억8400만원 중 161억5400만원을 확보했다. 해남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54%, 하수도 보급률은 40%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청정해역의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 국비확보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영광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 준공식

5일 오후 영광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 준공식이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정기호 영광군수, 주민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광군 최대 프로젝트인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는 특수목적법인인 (주)탑골로리가 맡아 지난 2009년부터 대마면 송죽·남산리 일원 165만2000㎡ 부지에 조성했으며, 도·군비 45억원, 민간사업비 1677억원이 투입됐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만큼 청정지역을 자랑하며,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문학 주무대인 ‘질마재’와 동학농민혁명 등 문화와 역사의 깊이가 남다른 지역이다.

김종식 영광군수는 이날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고창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 암관리사업 평가 4년 연속 우수

해남군이 최근 전라남도와 전남지역암센터가 주관하는 국가 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표창을 받았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암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재가 암 관리사업 등 국가 암 관리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 이번 대회에서 해남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암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높게 평가받았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보건소는 교육·홍보와 교통 불편지역 순회 이동검진, 건강홍보관 운영, 포스터 제작, 다중이용시설 재변비 비치, 재가암 환자관리 등 암 검진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적극적인 암 검진 사업을 홍보하고 교육한 결과 지난 9월 말 현재 암 검진 수검률이 전국 평균(21.4%)을 크게 웃도는 30.1%를 기록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고창, 해조류박람회 성공 공조

업무협약 맺고 상생 도모

완도군은 5일 “최근 전북 고창군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종식 완도군수와 이창제 완도군의장,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래한 고창군의장을 비롯한

양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지자체는 완도에서 열리는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고창군 지역축제가 상생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과 지역특산물 유통망 매강 공동구축, 국제행사 체험활동 참가 공무원 교육이수 시간 인정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

의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만큼 청정지역을 자랑하며,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문학 주무대인 ‘질마재’와 동학농민혁명 등 문화와 역사의 깊이가 남다른 지역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이날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고창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전북

고창 고구마 주산지 되나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선정 30억 확보

고창군이 농산물 종자산업의 거점 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군은 5일 “군 농가소득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구마 작물에 대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은 정부가 감자, 원예·특용작물 등 우수한 국산품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 보급할 수 있도록 시설기반 구축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고구마 종순분야에 고창군이 선정되면서 고구마 재배에 도움을 주는 무균종묘를 안정적으로 생

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본격적인 고구마 주산지로서 역할을 맡게 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14~2015년까지 무병종균 고구마 종자를 배양할 수 있는 조직배양실, 저온저장실, 육묘장, 증식용 하우스 등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직배양을 통해 무병종균 종자로 우수종묘가 생산되고, 식재 시 단위 면적당 고구마 생산량이 기존 대비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또 고구마 생산품종 중 우수품종이 늘어나고 대단위 무균종묘 분양을 통해 계약재배 농가에게 저렴하게 종묘를 공급, 농가 생산비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고구마는 실생종자로 재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영양체를 증식해서 파종 재배해야 하므로 기존 씨 고구마 생산이나 유통 선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추진으로 지역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군 고구마 재배면적은 1630ha로 전국 8%, 전라북도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고구마 생산과 함께 고구마 멜로우·전분 등 고부가가치 식품의 생산에도 주력, 군의 주축 산업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고창=홍창영기자 cy0370@

순창, 공무원 비리 사전 예방

‘자율 내부통제제’ 내년 도입

순창군이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 비리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업무해이, 오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와 관련 5일 군청 회의실에서 25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 이창제 사무관을 초빙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창제 사무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 시 불필요한 반복 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김중태 감사담당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지속해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향상을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순창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비리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세 부과 누락 방지 등으로 순창군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내장산백암사무소 ‘국립공원 순회 사진전’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5일 “지난달 26일부터 9일간 백암골 자연관찰로 일원에서 국립공원의 미적 가치를 알리고 자연자원의 소중함과 보전 필요성 홍보를 위한 ‘국립공원 순회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제11회 국립공

원 사진공모전’ 수상작 97점 중 주요 작품 30점이 선보였다.

또 제17회 장성 백양단풍축제 기간 동안 내장산국립공원 홍보관을 운영해 전국 국립공원의 다채로운 자연경관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기도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농기센터, 귀농·귀촌인 농기계 사용 교육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일 전입한 귀농·귀촌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습포장에서 농기계 안전 사용 요령 및 경운기 운전 요령, 관리기로 골타는 요령 등 실기실습을 실시했다.

또 농기계 안전 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특별 안전교육, 농기계 보관관리 요령, 농기계의 사

용연습을 늘리는 효율적 운행법 등 농기계를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들을 전수했다. 특히 교육 대상자가 초보 영농인이라는 점을 감안, 일대일 개인 학습을 통해 직접 익히도록 하는 등 교육 효과를 높였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순창,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

한국전쟁 전후 집단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합동 추모제가 5일 쌍치면 금령리 위령탑에서 희생자 유족과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순창군유족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제 발주 및 착공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자체 설계단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 측량 시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사 시행 시 착오나 민원을 미리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6년 동안 자체설계단 운영을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69건(291억원)에 대한 자체설계를 통해 모두 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최영일 군의회의장 등이 맡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8년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자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9명의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없이 희생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희생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 전통공원 조성 아이디어 267건 접수

전주시는 5일 “10월 한 달간 전통공원 조성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267건의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덕진공원 선착장과 오리배 대신 나무터와 나룻배를 띄우는 제안, 연꽃 가마 형태의 새로운 이동수단을 운영하자는 제안, 전주 8경의 모습을

담아보자는 제안, 스토리를 담은 창곡공원을 개발하자는 제안, 분수를 이용해 무지개를 띄우자는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심사해 이달 말에 시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전통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물고기야 잘 자라거라”

순창군은 5일 개발과 어류 포획 등으로 고갈돼 가는 토종어류 보호와 섬진강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기 위해 붕어, 잉어, 동자개 등 17만 마리를 섬진강에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등학교생과 지역주민들도 참여했다.

(순창군 제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정읍, 내년 2월까지 한시적

정읍시가 201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으로 자체 설계단을 구성해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자체 합동설계단은 건설과장을 총괄단장으로 3개반 14명으로 편성, 내년도 지역개발사업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414건(42억1100만원)에 대한 자체설계를 추진한다.

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자체설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토목직 공무원들의 시공 및 건

설행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올 연말까지 현지 측량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3월 초 일제히 발주 및 착공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자체 설계단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 측량 시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사 시행 시 착오나 민원을 미리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6년 동안 자체설계단 운영을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69건(291억원)에 대한 자체설계를 통해 모두 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